

정책브리핑



정책브리핑 | 2022-036호 | 2022년 11월 3일 | 발행처 민주연구원 | 발행인 노웅래 | idp.theminjoo.kr

김진태발 경제위기, 금융안정 대책 시급하다

남 국 현 연구위원(경제학 박사)

《 요 약 》

■ 레고랜드 사태 현황

- 레고랜드 사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월 28일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촉발됨
 -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어음이 부도를 내자, 채권시장의 신용경색을 더욱 촉발함
 -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고자 채권시장에 '50조 원 + α ' 규모의 유동성 공급대책 발표

■ 레고랜드 사태의 영향 및 문제점

- 회생절차신청으로 채권발행액 12.3조 원 소멸, CP 금리상승 이자부담 1.7조 원 등 총 14조 손실
 - 생산유발 28.9조원, 부가가치유발 9.8조원, 고용유발 8만 5천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 감소
-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아 2,050억 원을 50조로 막는 사태가 발생, 정부와 지자체 간에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점이 문제
 - 금융시장이 신용경색인 상황에서 회생절차 신청으로 금융불안정을 초래하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정부의 '무능, 무책임, 무대책'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

■ 정책제언

- 회사채, 부동산 PF, 자산유동화기업어음(ABCP), 브릿지론 등 만기연장 및 정부매입
-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기업의 회사채, ABS(자산유동화증권) 등 신용보증 강화
-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은행의 가산금리를 동결·인하하는 규제마련
- 은행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회사채 매입으로 기업지원

▶ 키워드: 레고랜드, ABCP, 회사채, 회생절차

♣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,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1. 레고랜드 사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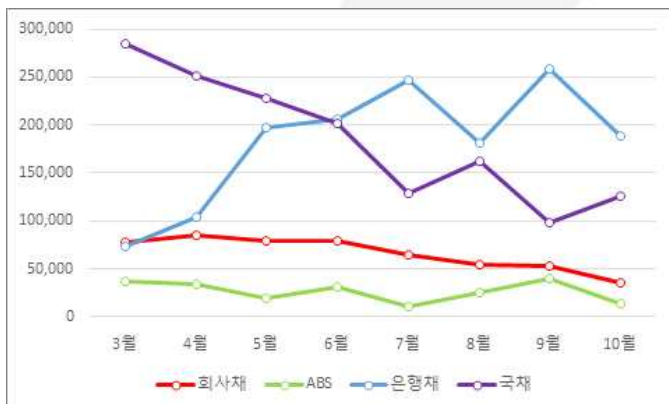
- 회생절차 신청으로 채권발행액 12조 3천억 소멸, CP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1조 7천억 등 14조 손실, 14조는 생산유발 28.9조 원, 고용유발 8만 5천 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 감소에 해당
- 레고랜드는 2011년 강원도와 영국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멀린 그룹이 도유지인 중도에 레고랜드를 조성하기로 투자에 합의하고 계약을 맺은 관광사업임
 -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레고체험 테마파크 레고랜드가 개장함
- 레고랜드 사태는 김진태 도지사가 지난 9월 28일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촉발됨
 - 2020년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(SPC)인 아이원제일차(주)를 설립하고, BNK 투자증권을 통해 2,050억 원의 자산유동화 기업어음(ABCP)을 발행하였고, 여기에 강원도가 지급보증함
 - 김진태 지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보증을 서준 채무 2,050억 원을 갚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고, 아이원제일차는 대출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만기일인 9월 29일에 금융기관에 통보
 - 10월 5일 강원도 보증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(ABCP) 부도처리
- 최문순 전 지사는 “중도개발공사는 흑자기업으로 회생절차를 발표하기 전날 증권회사하고 빚을 갚은 걸 연장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”고 MBC 라디오에서 발언함
 - 중도개발공사는 BNK 증권과 기업어음을 만기 연장하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였지만, 강원도가 보증철회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부도처리됨
-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어음이 부도를 내자, 금년 초부터 신용경색이 진행되어 온 상황에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의 신용경색을 더욱 촉발함
 - 우량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회사채가 유찰되고,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는 거래되지 않아 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렵게 되어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 확대
 - 부동산 침체로 부실이 쌓여온 PF 채권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여 부동산 개발업체의 파산과 지급보증한 증권사, 저축은행 등의 부도위험 우려됨
-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고자 채권시장에 ‘50조 원 + α ’규모의 유동성 공급하는 대책 발표
 - 강원도는 12월 15일까지 2,050억 원 모두 상환하기로 결정하지만, 지방채 신용도는 급락하고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져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줌
- 김진태 지사는 “이렇게까지 일이 크게 번지고 금융불안을 초래해 유감”의 입장을 밝힘
 -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음부도 처리가 되고,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변

2. 레고랜드 사태의 영향 및 문제점

○ 채권 발행금액 및 채권금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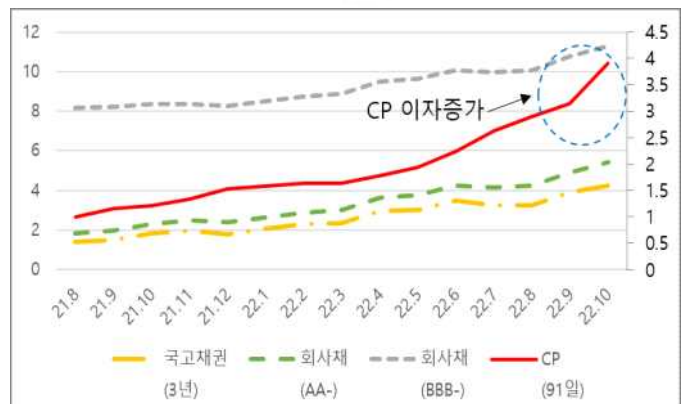
- <그림 1>를 보면,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언(9.28) 이후 채권시장에서 10월 채권발행액은 9월에 비해 12조 3천억 원이 감소함
 - 회사채는 9월 5조 3천억 원에서 10월 3조 6천억으로 30.6% 하락하고, 전년 동월대비 51% 감소
 - ABS(자산유동화증권)는 9월 3조 9천억에서 10월 1조 6천억으로 58.8% 하락함
- 은행채 발행액은 3월 7조 3천억에서 9월 25조 8천억으로 253% 증가하였고, 같은 기간에 전체 채권발행액에서 은행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.4%에서 40.5%로 급증함
 -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은 15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이자수익을 올린 반면, 투자자금이 은행 채로 몰리는 동안 회사채, 기업어음(CP) 발행이 되지 않아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됨
 -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긴축정책 기조에 맞춰 국채발행도 3월 28조 5천억에서 9월 9조 8천억으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, 국채발행만 10월에 증가하여 채권시장 불신과 신용경색 심각
- <그림 2>에서 기업어음(CP) 이자는 22년 9월 3.14%에서 10월 3.9%로 0.76%p 상승하여 최근 3개월 사이 0.25%p씩 증가하던 이자율이 김진태 지사 발언으로 10월에 0.5%p 더 증가하게 됨
 - CP 발행잔액 335조를 기준으로 0.5%p 이자증가분 계산하면 1조 7천억의 기업 이자부담이 증가
 - 우량채권인 회사채(AA-) 금리는 21년 8월 1.8%에서 22년 10월 5.4%로 3배 증가
 - 비우량채권인 회사채(BBB-)는 8.2%에서 11.3%로 2.1% 상승해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커짐
 - 21년 8월 이후 채권 금리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이자부담을 추정하기 위해 채권발행잔액 2,500조 원, 금리증가율 3.5%p 회사채 기준으로 계산하면 87.5조 원 정도 기업의 이자부담이 증가
- 회생절차 신청으로 채권발행액 12조 3천억에 이자부담 1조 7천억을 합하면 14조 손실발생
 - 14조 손실은 생산유발 28.9조 원, 부가가치유발 9.8조 원, 고용유발 8만 5천 명 등 경제적 파급 효과 감소

<그림 1> 채권 발행금액(단위: 억원)

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<그림 2> 채권금리 추이(단위: %)



자료: 한국은행

○ 건설업 자금조달과 건설경기 및 부동산 PF 대출잔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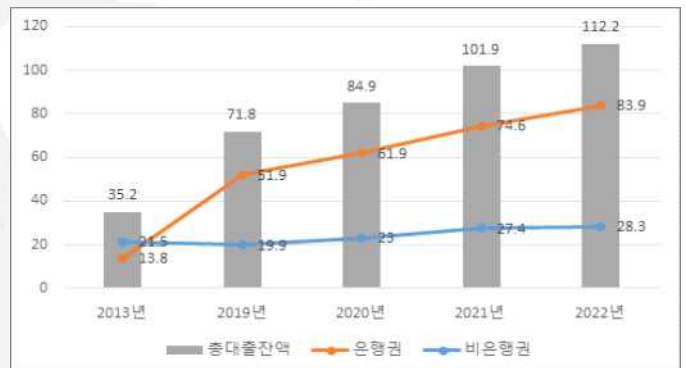
- 레고랜드 사태는 미분양 확산과 집값 하락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도 직격타를 날림
 - 건설사들도 이자와 원자재 부담, 미분양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 금융사로부터 부동산 PF 대출마저 거절당해 건설사들의 줄도산 위기의 우려가 증대됨
 - <그림 3>을 보면, 올해 자금조달지수와 건설경기실사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, 특히 자금조달지수는 10월에 지난달 대비 31.8포인트 급락하여 2013년 5월(39.1)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
 - 둔촌주공 PF 7,000억 원 차환 발행 실패(10.21), 우석건설 1차 부도(9.30) 등 건설업계 자금조달 위기
- <그림 4>에서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2년 6월 112.2조 원으로 13년에 비해 77조(219%) 증가
 - 비은행권은 13.8조 원에서 83.9조 원으로 70.1조 원(508%) 증가하고, 올해 1분기 증권사 연체율은 4.7%로 19년 말(1.3%) 대비 3배 증가해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증가로 금융권 위기감 고조
-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, 서민경제가 힘든 시점에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발 사태로 인해 금융 위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여야 함

<그림 3> 건설업 자금조달지수 및 건설경기실사지수



주: 지수가 낮을수록 자금조달과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
자료: 한국건설산업연구원

<그림 4> 부동산 PF 대출잔액 추이(단위: 조원)



자료: 한국은행

○ 정부의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대책 및 문제점

- 50조 원 + α 규모로 유동성 공급프로그램 확대(10.23)
 - 20조 원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활용, 1.6조 원의 시공사 보증 PF-ABCP 등 회사채·CP 매입재개
 - 산업은행, 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의 한도를 기존 8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2배로 확대,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함
 - PF-ABCP 차환 어려움이 있는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3조 원 유동성 지원 실시
 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·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 원 규모로 확대
- 정부대응의 문제점
 -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발언(10.14) “레고랜드 문제는 강원도에서 대응을 해야 할 거 같다. (시장전반으로 불안 심리가) 확산될 단계는 아닌 것 같다”고 답변
 - 정부는 ‘50 + α ’대책(10.23)을 발표하였는데, 정부 대응이 너무 늦었고 금융시장이 신용경색인 상

황에서 회생절차 신청으로 금융불안정을 초래하는 메커니즘을 장관은 전혀 이해하지 못함

- 9월 28일 강원도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,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아 2,050억을 50조 막는 사태가 발생, 정부와 지자체 간에 전혀 소통이 되는 않는 점이 문제
- 정부의 이번 유동성 공급 대책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기조와 어긋나는데, 부자감세로 사퇴한 영국총리와 비슷한 상황이고,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됨
- 채권시장에서 한해 채권발행액(회사채, ABS, 기타금융채)이 204조(2021년 기준)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의 50조 자금공급은 부족함

3. 정책제언

○ 회사채, 부동산 PF, 자산유동화기업어음(ABCP), 브릿지론 등 만기 연장 및 정부매입

- 조기상환 억제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을 유도하고, 정부의 채권매입으로 적극대응
 - 금리 급등으로 기존 PF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조기상환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
 - 제2금융권에서 브릿지론 만기연장 요청 시 20% 이상의 고금리를 요구하여 다수의 개발사업 시행주체들이 파산 위기에 노출

○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기업의 회사채, ABS(자산유동화증권) 등 신용보증 강화

- 회생절차 신청으로 채권시장에서 회사채, ABS 발행이 급감하고, CP(기업어음) 금리가 급등하여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업의 채권(어음) 신용보증 강화
 - 10월에 회사채 발행액 등 14조 감소, CP 금리가 0.76%p 상승하여 기업 채권(어음)의 신용보강 필요

○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은행의 가산금리를 동결·인하하는 규제방안 마련

- 올해와 같이 기준금리가 빅스텝(0.5%p)으로 인상하는 시기에 시중은행이 한국은행과 같이 가산금리를 올리면 국민과 기업의 이자부담이 가중되어 자금조달이 어려워짐
 - 올해 KB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이자수익은 총 15조 3억 원으로 조사되었고, 지난해 상반기 12조 6천억 원에 비해 21.7% 증가해 반기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함
 - 22년 7월에 KB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은행은 전년 동월 대비 가산금리를 각각 0.45%p, 0.25%p, 0.29%p, 0.55%p 인상하여 고물가, 고환율, 고금리 시대에 더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
 - 기준금리 인상 시 금융위원회가 가산금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, 금융감독원과 모니터링 강화

○ 은행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회사채 매입으로 기업지원

- 이번 국감에서 5대 은행장은 사회공헌을 확대하겠다고 하였고, 현재 채권시장의 자금조달 위기 상황에서 단기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기업의 회사채를 적극 매입할 필요가 있음
 - 5대 은행의 기업대출은 지난 9월말 대비 10월말에 8조 8천억 원이 증가하였고, 그 중 대기업이 5조 8천억 원, 중소기업이 3조 원 증가해 여전히 중소기업의 대출이 어려운 상황임
 - 19개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은 -1.26~13.59%로 조사되어 확대가 필요